

Fukushima NOW

Vo. 1 (2016年8月発行)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는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로부터 올 3 월까지의 5 년간, 본 협회 광고지인 'Gyro(자이로)' 지진부흥판 '힘내자 후쿠시마' 를 다국어로 25 회 발행하였습니다. 지진재해 부흥과 복구를 위한 작업과 국제교류, 협력단체의 활동 등을 국내외의 여러분에게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따뜻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후쿠시마현 현황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앞으로 'Fukushima NOW'로 후쿠시마현의 상황과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Voices from Fukushima

자이 타츠호우 (중국출신, 후쿠시마시 거주)



1999 년에 일본에 왔고, 이후 일본과 중국을 왔다갔다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후쿠시마에서의 생활을 재개하였고, 2 명의 아들은 후쿠시마 시내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걱정도 했지만 주위의 세세한 지원 덕분에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후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어 습득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올 6 월, 외국 루트의 자녀들과 보호자들이 모이는 숙박교류회 '다문화키즈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두 아들은 즐겁게 참가했습니다. 저도 주최자와 보호자 여러분으로부터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출신자들과 그 외의 외국출신자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평소 없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참가한 '다문화 키즈 캠프'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생활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있습니다.

이스마일 바후미씨

(인도네시아출신, 후쿠시마시 거주)



2014 년 여름, 기능실습생으로 후쿠시마에 왔습니다. 일본어를 거의 몰라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에 관한 후쿠시마의 상세한 상황을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걱정하며 당시 치바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모국의 선배가 근처의 제가 다닐 수 있는 일본어교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거의 매주 다니면서

일상회화는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진과 강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본어 교실에는



▲일본어 교실의 레슨 모습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러 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습관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에는 '콤니타스 후쿠시마 인도네시아'라는

인도네시아 출신자들의 그룹이

있어, 올해 저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멤버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함께 다른 현을 방문 하거나 지역 이벤트에 참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와 협동하여 쓰레기 분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관심 있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행동력은 가능성을 넓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정신은 유지하며, 장래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Scenes of Fukushima

인도 학생들 이와키시 시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와키 시내에 있는 외국어지도 보조로서 근무한 티아 칸사라씨가 지진 후 이와키시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인도 CEPT 대학 학생들 18명을 인솔해 5월 20일(금)~22일(일) 기간 동안 이와키시를 방문했습니다. 체류기간 중에는 (공재) 이와키시 국제교류협회 주최로 자연과 환경을 배려하는 일본 국민의 가치관과 그 예를 배우는 스터디투어가 실시되어, 클린피아의 집에서 재생자원관리 시행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와키·라·라·뮤의 지진관계 전시코너 등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이와키 시내에서 특히 쓰나미피해가 컸던 우수이소·토요마지구를 방문하여 부흥이 진행되는 모습을 시찰했습니다.



▲ '이와키·라·라·뮤' 를 견학하는 학생들

아이즈와카마츠시 국제교류협회 설립 20주년

아이즈와카마츠 국제교류협회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아 7월 9일(토), 아이즈대학 강당에서 기념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약 400명이 출석하고 알파니스트 노구치켄씨의 강연과 패널디스커션이 열렸고,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아이즈와 세계와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패널디스커션 모습

JET 프로그램 신규유치 외국청년들 일본 입국

어학지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외국청년유치사업 (JET 프로그램)은 올해 47명이 후쿠시마현에 임용되어 7월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일본에 왔습니다. 청년들은



▲일본에 온 JET 청년들

후쿠시마현 내 초중고교 외국어지도 보조와 시정촌 국제교류원으로 현내 각지에 부임합니다. 현민과의 국제교류 및 국제이해를 위한 공헌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어 부흥정보 포털사이트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 '후쿠시마 부흥스테이션', 후쿠시마현의 부흥상황과 식품 안전, 현내 방사선 상황 등을 9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흥 현황을 화상과 데이터를 이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후쿠시마 부흥을 향한 걸음'은 4개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URL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FIA에서의 알림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본 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영어·중국어·일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 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목요일 10:00~14:00
- 전화 : 024-524-1316 (상담전용)
E-mail :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 960 - 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

